

##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 제16과 회개

[요일1:9,10]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 관문이 회개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맨 먼저 전파한 기별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의 제자들도 나아가서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기별이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과 회개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살펴보자.

1.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파하셨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시작을 침례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기별로 시작하였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다룬 다음 곧 침례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다.

[막1:1-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마3:1,2] 그 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눅3: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예수님도 갈릴리 전도의 시작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마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막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회개를 전하라고 하셨다.

[막6:7,12]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사람을 회개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눅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2. 회개란 무엇인가?

[행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5:31]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는 방법이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은 믿지 않을 때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받는데 이 말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다고 가르친 것이다.

신약성경에 회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두 개 있는데 “메타노이아(μετάνοια)”와 “에피스트레포(ἐπιστρέφω)”이다. “메타노이아”는 “나중에 한 생각, 생각을 고쳐 바꾼 것”을 뜻하는 말이고, “에피스트레포”는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회개는 죄를 뒤우치고 돌이켜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했다는 것은 회개하기 전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다.

히브리어로는 회개라고 번역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낙함(נָפַח)”과 “슈브(שׁוּב)”이다.

[욥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회개가 “낙함”이다. “낙함”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자기의 생각과 생활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을 뜻한다.

[겔18:3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기 회개가 “슈브”이다. “슈브”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다시 오다”등의 뜻이 있다. 이 “슈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것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사람의 허물과 반역을 그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 3. 회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주도권이 회개하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롬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딤후2: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행5:31]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행11: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들은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슈브”하심으로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슈브”할 수 있다. 죄인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힘입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용서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 4. 어떤 것을 회개하는가?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 어떤 것을 회개하는가라는 질문은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라는 말과 같다. 지난 과에서 죄는 사망이 된 상태라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는 자기의 상태를 솔직하게 시인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시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48:8]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깨홀하고 깨홀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엡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롬8:6,7]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아 중심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화된 관념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상은 곧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와 사상과 행사가 다 죄 자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관, 도덕관, 가치관, 선악관, 등등이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성인다워도 육신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요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이다. 이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해야 한다.

[고후10:5] 모든 이론을 꺾으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꺾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육신에 있는 자는 그 생각을 마귀가 주장한다.

[요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또 우리의 날마다 생활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공기를 호흡한다. 보는 것, 듣는 것, 언어,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감정생활 등등 하루하루 사는 중에 새 생명이 손상을 입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사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고전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22: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옷이 깨끗해져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계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 5. 목욕과 발 씻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가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이 그것이다.

[요1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회개에는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욕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실을 가리킨다. 발 씻는 회개는 날마다 생활의 허물들, 때로는 허물이 아니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회개는 다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어린양의 피에 씻겨야 한다. 그래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유지되는 것이다.

6.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레5:4,5]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허물진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도 자복해야 한다. 갚아야 할 것들은 갚아야 한다. 십일조, 헌금, 등도 신실하지 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갚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날 그 죄가 나를 죄인이라고 찾아낼 것이다.

[민32:23]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7. 회개의 결과

[행11: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근본적인 죄를 회개할 때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씻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얻은 영생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아주 깨끗하여진다.

[요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일3: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를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도록 회개해야 한다. 곧 생명을 얻는 회개와 그리고 이 얻은 생명을 날마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회개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해 놓은 회개의 길이다.